

코스피 최고치 경신... 장중 3,317.77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종일 상승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앞두고 부양 기대

코스피가 10일 4년 2개월만에 최고치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0.37%) 오른 3,272.20으로 출발해 장 초반 올해 7월 31일 기록한 연고점(3,288.26)을 뚫어냈다.

이후 3,300선을 넘어 거듭 역사상 최고점 돌파를 시도하다 결국 오후 2시 23분께 3,317.77까지 치솟으면서 4년여만에 사상 최고 기록(3,316.08, 2021년 6월 25일)을 갈아치우는 쾌거를 이뤘다. 종가로도 기존 최고치(3,305.21, 2021년 7월 6일)를 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

각 1조3811억원과 902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4985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면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6.39포인트(0.43%) 오른 45,711.34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17.46포인트(0.27%)와 80.79포인트(0.37%) 올랐다.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 예고한 대로 강화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자극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



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자 여당은 현행(50억원) 유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18포인트(0.99%) 오른 833.00으로 장을 마쳤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CONOMY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광주전남벤처기업협 포럼 성료

랜섬웨어 방지·데이터관리 강연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최근 라마다 플라자광주호텔에서 ‘제25회 광주전남벤처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공동으로 열렸으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인과 유관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 강연은 법률사무소 남산 김정원 변호사가 나서 ‘기업 내부통제시스템과 투자·M&A·IPO 실사’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적·규제 준수, 지배구조, 정보보호 등 핵심 심사 요소를 설명했다. 이어 ㈜넌테크 김덕량 대표이사는 ‘AI 시대 랜섬웨어 방지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불변 스토리지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김덕량 대표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의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랜섬웨어 공격은 특정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의 생존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이어 WORM(Write Once Read Many) 스토리지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보안 및 복구 전략을 제시했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내부통제와 데이터 보안은 기업의 생존과 도약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광주·전남 벤처기업들이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크린토피아 창업설명회

내일 첨단리채비즈타워

세탁 전문 기업 크린토피아는 1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광주 첨단리채비즈타워에서 ‘찾아가는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생활 필수 업종인 세탁 산업이 가진 꾸준한 수요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세탁업은 경기 불황에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재고 부담이나 원가 변동 위험이 적어 초기 투자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일부 가맹점에서는 1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도 보고되는 등 업종 안정성을 입증했다.

크린토피아는 무인 운영이 가능한 ‘코인워시365’, 소자본 창업 가능한 세탁 편의점 ‘크린토피아’, 두 모델을 결합한 ‘크린토피아 Multi’ 등 세 가지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실제 가맹점 사례와 상관 분석 자료를 통해 각 모델의 장단점을 안내하며 본사 전문가가 직접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됐다. 신규 매장 오픈이나 매장 양수 시 가맹비 400만원 면제와 임대료 일부 지원이 제공된다. 여기에 코인 세탁 장비 최대 50% 할인, 초기 마케팅·홍보료 지원, 고객 사은품 제공까지 더해져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크린토피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석이 어려운 예비 창업자를 위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개별 상담 서비스도 운영, 지역적 제약 없이 동일한 수준의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역 예비 창업자들이 본사 전문가와 직접 만나 창업 준비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유동성 HD현대삼호 기원, ‘대한민국명장’ 영예

회사 최초...육상건조공법 선박 진수 시스템 선도

HD현대삼호의 유동성 기원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

HD현대삼호는 최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당사 설비보전부 외업정비팀장인 유동성 기원이 기계조립·관리정비 분야 기계정비 직종에서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장패를 수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은 지난 1986년 첫 명장이 이름을 올린 이래 직종마다 매년 최대 1명만 선정되며 유동성 기원은 기계정비 직종에서 통산 13번째로 명장 반열에 올랐다.

조선업 기계정비 분야 외길 41년 경력의 유 기원은 지난 1994년 HD현대삼호의 모태인 한라중공업에 경력으로 입사해 영암조선소 건설부터 참여하며 30년이 넘도록 회사와 고락을 함께했

다. 안정적인 기계설비 관리와 개선을 통해 공정 단축을 이끌어내 회전을 크게 높였고, 특히 LNG운반선 등 육상건조공법으로 생산하는 선박을 진수하는 핵심 기계설비의 시스템을 체계화, 안착시켜 매출 신장에 공헌했다.

선박 육상건조를 기계장비 원천기술 관련 특허 8건, 기계정비 관련 서적 5권을 집필하는 등 학술 분야에서의 활동도 왕성하다.

2014년 국가품질명장을 비롯해 2019년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자, 2023년 전남도명장에 선정되는 등 이 미국가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숙련기술인으로 여러 차례 인정받은 바 있다.

후진 양성 및 상생 발전에도 적극적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술멘토링, 직업진로 지도, 비전제시 인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술지원 및



컨설팅에도 앞장서고 있다.

유동성 기원은 “대한민국 최고 숙련 기술인에게 부여하는 명장 칭호를 받게 돼 뿌듯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명장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계정비 분야의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와 회사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후배들의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전남 RISE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광주·전남RISE센터는 최근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지역 RISE 초광역 지·산·학·연 협력체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전남RISE센터, 초광역 지·산·학·연 협력 시동

광주TP 등 4개 기관 협약...혁신 생태계·인재양성 기반 마련

광주·전남RISE센터는 최근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지역 RISE 초광역 지·산·학·연 협력체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5국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광주·전남이 초광역권 차원의 공동과제를 발굴, 기업지원, 인재양성, 현장실습 등을 위한 시·도 간 연계 협력, 광주·전남 주력 산업과 관련한 맞춤형 산학협력, 초광역 인재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5국3특 기반 초광역 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초광역 협력사추출, 지역기업 성장과 주력산업 육성 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성장엔진 시범프로

젝트 공동 추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초광역 혁신인재 양성’과 RISE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협약에 따라 RISE기본계획과 연계한 양 시·도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기업지원, 인재양성, 현장실습 등을 위한 시·도 간 연계 협력, 광주·전남 주력 산업과 관련한 맞춤형 산학협력, 초광역 인재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들로 지역과 대학, 산업,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초광역 혁신 플랫폼 구축, 지역기업 성장과 주력산업 육성 지원,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년 정착 기반 마

련 등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

범huis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이 함께 미래 인재를 키우고, 교육과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연결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직 광주TP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모범적인 초광역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성장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RISE센터는 향후 ‘광주·전남 RISE 초광역 협력 전략 세미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산단공 광주본부, 출근길 근로자 커피차 응원

산업단지의 날 맞아 빛그린산단 방문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0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산학융합원 앞에서 근로자 응원을 위한 커피트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4일 ‘산업단지의 날’을 기념하는 산업단지 워크(8-12일) 일환으로 추진됐다.

근로자 출근 시간에 맞춰 약 200명을 대상으로 사원한 커피와 쿠키를 무료 제공하며 힐찬 하루를 격려했다.

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의 든든한 버팀목인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산업단지의 날을 맞아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AI 접목을 통한 산업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0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산학융합원 앞에서 근로자 응원을 위한 커피트럭 행사를 개최했다.